

포천우체국 1905년 8월 開局 올해 100주년

우편서비스 제공 총괄우체국으로 성장

배달장소 시간 고지 배달사전 예고제 실시 예정

포천우체국(국장 이완규)은 지난 10일 개국 100주년을 맞이했다. 1905년 8월 10일 포천임시우편소로 개소해 우정업무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20년 3월 포천우체국으로 개칭되었고, 1971년 12월 사무국관으로 승격, 1994년 9월 현청사로 개축 이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포천우체국은 일반우체국 7개, 별정우체국 5개의 우체국과 3개 출장소, 2개 우편취급소에서 우편물 취급을 비롯한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기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지역 총괄우체국으로 성장해 왔다.

포천우체국은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춰 우체국 고유업무인 우편업무와 금융서비스 외에도 포천지역

에서 생산되는 홍삼을 비롯한 각종 특산품을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완규 국장은 "우체국은 과거 우편업무 중심에서 현재는 금융업무는 물론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송금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지역특산물 판매, 경조우편 및 꽃배달 서비스, 상품권과 주유권 판매 등 업무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외에도 불우이웃돕기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가정의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장애인에 대한 우편물 무료보급 기금(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등 매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포천우체국의 자랑스러운 임직원이 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고 이완

규 국장은 설명했다.

포천지역은 군 주둔지역으로 군사우편이 많아 군사우체국 2개와 출장소 2개 등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완규 국장은 "과거 수작업으로 행하던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우체국 업무를 IT산업과 접목, 절차를 크게 개선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체신청이 지난 상반기 3개월 이내 등기우편물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포천우체국은 친절도면에서 체신청 산하 58개 총괄우체국중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배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주회 집배원 배달 친절교육을 통해 우편물을 받는 고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IMF이전에는 집배원은 3D 업종으로 알려져 기피하는 직종이었지만, 현재는 취업난을 반영하듯 경쟁력이 치열한 뿐 아니라 평균 학력 또한 2년제 대졸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포천우체국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이완규 국장은 "개국 100주년을 맞았는데, 100년이라는 것은 완성이자 또다시 시작으로 과거 100년보다 앞으로 10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직원 자질향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업무에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천우체국 현안 사업은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과 더불어 책임경영체제 도입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을 유치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포천지역은 도시화되어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부족한 우편 수취함이 반



포천우체국(국장 이완규)은 지난 10일 개국 100주년을 맞이해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송함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면 우편물을 배달하기가 한결 좋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통신사업 부문이 발달하면서 우편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우체국에 접수되는 우편물도 전년도에 비해 4~5%가 감소한 반면 택배나 국제특송업무(EMS)는 전년도에 7~10%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완규 포천우체국장은 "동창회 모임이나 세금고지 안내 등을 대행해 주는 전자우편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우편물 배달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배달시간 예고제 등의 실시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아들은 골절의 상처로 전장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대(代)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고사(古辭)의 이야기다.

여기서 이 세옹의 달관(達觀)과 그때그때 취한 의연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敎訓)이 되고 있다.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보다는 낙담의 소리 불면소리만 들린다. 모두가 과민성질환에 걸려있다. 정치는 미래의 지향보다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고유가 고실업(高油價 高失業)이라는 오늘의 현실로 많은 국민들은 불면소리를 터트린다. 그저 체념하고 사는 게 현명인가? 이런 때 세옹의 지혜로 막연히 살아야 하나!

그런데 성서(聖書)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 과거의 영욕(榮辱)에서 벗어나 오직 미래(未來)를 향해 달려가라고 격려하신다.

빌립보서3장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나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문의) 031-532-2489

본지 운영위원회 제44차 정기회의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위원간 친목도모 강화

본지 운영위원회 제44차 정기회의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윤이용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이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포천신문 발전과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요즘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으로 운영위원님

들의 기업체에 손실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전제하고 "항상 포천신문과 운영위원회 발전에 노력과 관심을 보내 준 운영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토의에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을 통한 위원간 친목을 도모와 식사모임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순회,방문하기로 했다.

이호원 기자 forme65@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5영북면자율방범대 대장 조 만 형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지역사회 화합 도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율방범대일 겁니다." 영북면자율방범대는 1980년대 후반 창설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포천경찰서 영북지구대와 공조해 주로 야간 방범 순찰 업무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캠페인, 역사꽃 축제 교통지도 지원, 지역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지역방범대이다.

지난달 15일 영북면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한 제13대 조만형 대

장(43)으로부터 영북면자율방범대의 현황을 들었다.

조만형 대장은 대장 취임 이전 영북면자율방범대의 수석부대장을 역임했다.

영북면 자율방범대는 조만형 대장을 위시해 정영수 수석부대장, 윤정석 부대장, 박명희 총무, 연양홍·김삼을 감사를 포함 33명의 대원으로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영북면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북면 우방지역인 영북초등학교 뒷동산, 문무리 개울가, 빈집이나 빈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조 대장은 "영북면 자율방범대는 현재 특색있는 방범활동보다는 일상적인 방범 및 치안유지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본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지도활동을 중점적으로 펼

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선도 및 지도활동은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이 날로 거칠어지고 과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장은 "방범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생활안전협의회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킴이 기자 94spice@hanmail.net



조 만 형 영북면자율방범대 대장

복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마련

오는 9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포천시가 체계적인 복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복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9월 2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에는 ▶녹지의 보전

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녹화추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색녹화마을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장 및 근린공동녹화 등 도시 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복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9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부서(031-538-2381)로 문의하면 된다.

지킴이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